

[앞부분 줄거리]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채하던 북곽 선생은 수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부 동리자와 밀회를 나누다가 그의 아들들에게 발각된다.

이에 다섯 아들이 함께 포위하고 들이치자 북곽 선생이 깜짝 놀라서 도망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한쪽 다리를 들어 목덜미에 걸친 채 귀신의 춤을 추고 귀신의 웃음소리를 내며 문밖으로 나가 달음박질치다가, 들판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안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허우적거리며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편 호랑이는 이마를 찡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내뿜기를,

“선비라는 놈들 더럽기도 하구나!”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앞으로 기어 나와 세 번 절한 후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어 말하기를,

[A] “호랑이님의 덕이야말로 얼마나 지극하신지! 대인(大人)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帝王)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고, 아들들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將帥)는 그 위세를 본받고, 그 이름을 신룡(神龍)과 나란히 하시니,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셨습니다. 저 같은 궁벽한 땅의 천한 신민(臣民)은 감히 하풍(下風)*에만 있을 따름이옵니다.”

호랑이가 꾸짖기를,

“가까이 오지 마라! 구린내 난다! 내 들으니, 유(儒)란 족속은 유(諛)*하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는 세상의 나쁜 이름은 모두 모아 망령되어 내게 씌웠다. 이제 다급해지면 면전에서 아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믿겠느냐. 무릇 천하의 이치는 하나뿐이니 호랑이의 성품이 악하다면 인간의 성품 역시 악한 것이고, 인간의 성품이 착하다면 호랑이의 성품 또한 착한 것이다. 너희들의 천만 가지 말이 모두 오상(五常)*을 떠나지 않고, 경계(警戒)하고 권면(勸勉)하는 것이 모두 사강(四綱)*에 있기는 하다. 하지만 서울이나 지방의 고을 사이에 코 베이고 발 잘리며 얼굴에 문신을 새긴[文面] 채 돌아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품(五品)*을 순종치 못한 자들이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줄·떡바늘·도끼·톱* 등이 부족해 날마다 공급하기 바쁘니, 그 악한 짓거리를 멈출 방도가 없구나. 그러나 호랑이에게는 예부터 이와 같은 형구(刑具)가 없으니, 이것만 봐도 호랑이의 성품이 어찌 사람보다 어질다 하지 않을손가! 우리 호랑이들은 초목을 먹지 않고, 벌레와 물고기도 먹지 않고, 국열(麴藥)* 같은 퇴폐스럽고 어지러운 것들도 즐기지 않고, 자잘한 것들을 앞드려 먹는 것도 참지 못하지. 오직 산에 들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고 들에 나가 말이며 소를 잡아먹을 뿐이고, 일찍이 입이나 배에 누를 입히거나 음식 때문에 송사(訟事)를 한 적이 없으니, 호랑이의 도(道)야말로 광명정대(光明正大)하지 않느냐! 현대 호랑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들은 호랑이를 미워하지 않다가도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원수처럼 대하니, 이것은 노루나 사슴은 인간에게 은혜가 없지만 말이나 소는 너희들에게 공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도 그 태워 주고 복종하는 노력과 충성하고 따르는 정성을 저버리고, 매일 도살하여 푸줏간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뿔이나 갈기마저도 남기지 않더구나.

그리고도 다시 우리 먹이인 노루와 사슴까지 침범해서 우리 들을 산에서 먹을 것이 없게 하고 들에서도 굶주리게 하니, 하늘로 하여금 그 정사(政事)를 공평하게 한다면 너를 먹어야 하겠느냐, 풀어 주어야 하겠느냐?

무릇 제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을 ‘도(盜)’라 하고 생명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적(賊)’이라 한다. 너희들은 밤낮으로 허둥지둥 쏘다니며,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뜬 채 노력 질하고 흠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돈을 형(兄)이라 부르기도 하고 장수(將帥)가 되기 위해 자신의 처를 죽이기도 하니*, 이렇고도 또다시 인류의 도리를 논함은 말도 안 된다. 또한 메뚜기로부터 그 밥을 빼앗고, 누에로부터 그 옷을 빼앗고, 벌을 가두어 그 꿀을 긁어내고, 심지어는 개미알로 젓갈을 담가서 제 조상에 제사 지낸다고 하니, 그 잔인하고 박정함이 너희보다 더한 것이 있겠느냐? 너희는 이(理)를 말하고 성(性)을 논한다. 특하면 하늘을 일컫지만 하늘이 명한 바로써 본다면, 호랑이나 사람이 다 한가지 동물이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아 기르는 인(仁)으로 논하자면, 호랑이·메뚜기·누에·벌·개미들도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길러지는 것으로 서로 거스를 수 없는 것들이다. 또한 그 선악으로 따지자면, 공공연히 **벌과 개미**의 집을 범하고 그 꿀과 알들을 긁어 가는 족속이야말로 어찌 천지간의 큰 도(盜)라고 하지 않겠느냐. 또한 **메뚜기와 누에**의 살림을 빼앗고 훔쳐 가는 족속이야말로 어찌 인의(仁義)의 큰 적(賊)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호랑이는 일찍이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다. 이는 제 동포를 해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리고 호랑이가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도, 사람이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는 않다. 또한 호랑이가 말과 소를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도, 사람이 말과 소를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 않을 것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은 것이, 사람이 서로 간에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관중(關中)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백성들 사이에 서로를 잡아먹은 것이 수만이요, 그에 앞서 산둥(山東)에 큰 홍수가 났을 때에도 백성끼리 서로 먹은 것이 수만이었다. 하지만 백성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이 많기로서니 어찌 춘추 시대만 할까. 춘추시대에는 덕(德)을 세우겠다며 군사를 일으킨 것이 열 일곱 차례나 되었고 원수를 갚겠다며 군사를 일으킨 것이 서른 차례나 되었으니, 피는 천 리를 흐르고 얼어진 시체는 백만에 달했다. 그러나 호랑이의 족속들은 홍수와 가뭄을 알지 못하니 하늘을 원망할 까닭이 없고, 원한과 은혜를 모두 잊고 지내니 다른 동물에게 미움을 받을 까닭이 없고, 오직 천명(天命)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뿐이다. 그러므로 **무당이나 의원의 간교함**에 유혹되지 않는다. 또한 타고난 바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까닭으로 세속의 이해(利害)에도 병들지 않는다.

[B] 이것이 곧 호랑이의 슬기롭고도 성스러운 점이다. 가족의 아름다운 문양(文樣)을 보면 그 문(文)을 천하에 과시할 수 있고, 짙막한 병기(兵器)도 없이 다만 발톱과 이빨의 날카로움만 사용하니 그 무(武)를 천하에 빛낼 수 있으며, 이유와 유준*에 새겨진 호랑이를 보면 그 효를 천하에 떨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루에 한 번 사냥해서 까마귀, 술개, 청머구리, 말개미 등과 나누어 먹으니 그 인(仁)은 이루 다 쓸 수 없는 것이요, 고자질쟁이를 먹지 않고, 불구를 먹지 않으며, 상(喪)을 당한 자도 먹지 않으니, 그 의(義)도 이루 다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먹는 것을 보면 그 얼마나 어질지 못한가! ①뿔과 함정으로도 부족하여 새 그물·노루 그물·작은 물고기

그물·큰 물고기 그물·수레 그물·삼태 그물 등을 만들었으니, 최초로 그물을 만든 자야말로 천하에 가장 큰 화를 끼쳤도다. ㉠게다가 바늘이니 쥘 창·날 없는 창·도끼·세모난 창·한 길 여덟 자 창·뾰족한 창·작은 칼·긴 창 등이 생기고, 포(礮)란 물건이 있어 터뜨리면 그 소리가 화악(華嶽)*을 무너뜨릴 듯하고 불기운은 음양을 내뿜어 우레보다 더 광포하다. 그것도 부족하 그 잔학함을 더욱 왕성히 하고자 보드라운 털을 입으로 빨아 다듬어서 아교풀을 발라 끝이 뾰족하게 만들었다. 그 모양은 대추씨 같고 그 길이는 한 치도 채 못 되는데, 오징어 거품에 담가 종횡으로 치고 베더구나. ㉡휘어짐은 창[矛] 같고, 날카로움은 칼[刀] 같고, 예리함은 검(劍) 같고, 갈라짐은 극(戟) 같고, 곧음은 화살[矢] 같고, 팽팽함은 활시위[弓] 같다. 이 병기가 한번 움직이면 온갖 귀신이 밤중에 곡(哭)할 지경이다. 서로 잡아먹는 가혹함이 너희보다 더한 자 누가 있겠느냐?”

북곽 선생이 자리에서 떠나 **옆드린 채 머뭇거리다가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하기를,

“전하는 말에 이르기를, ‘**비록 악인이라도 목욕재계하면 상제(上帝)를 섬길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궁벽한 땅의 천한 신민은 감히 하풍(下風)에만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하고 숨을 죽인 채 호랑이의 말을 기다렸다.

오랫동안 아무 명령도 없기에 황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다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동방이 밝아오는데 호랑이는 이미 가고 없었다.

농부 한 명이 아침에 밭을 갈려고 나오다가,

“선생님, 무슨 일로 아침 일찍 들판에다 절을 합니까?” 하고 물었다. 북곽 선생은,

“내가 들으니 ‘**비록 하늘이 높다고 하나 감히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비록 두텁다고 하나 감히 어그러지지 않을 수 없다*.**’ 고 하더군.” 이라고 하였다.

- 박지원, 「호질」

*하풍: 사람이나 사물이 절이 낮음.

*유: 아침할 유.

*오상: 사람으로서 항상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즉 ‘인, 의, 예, 지, 신’ 을 이룸.

*사강: 사람을 규제하는 네 가지 도덕. 예, 의, 겸, 치를 가리킴.

*오품: 오류.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을 가리킴.

*밧줄 ~ 톱: 모두 죄인을 다스리는 형구(刑具)임.

*국열: 누룩, 혹은 누룩으로 빚은 술.

*장수가 ~ 죽이기도 하나: 중국 전국 시대 위나라 병법가 오기의 고사. 그의 아내가 제나라 사람임을 꺼리는 참소가 있자, 그는 자신의 아내를 죽임으로써 그 충성심을 과시함.

*이유와 유준: 이유는 주로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으로 술을 담을 때 씀. 유준은 원래 ‘원숭이를 조각한 술그릇’ 임.

*화악: 중국의 오악 중 서악으로 불리는 화산.

*비록 ~ 않을 수 없다: 『시경』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임.

1. 25001-0299

‘북곽 선생’의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북곽 선생이 ‘한쪽 다리를 들어 목덜미에 걸친 채 귀신의 춤을 추고 귀신의 웃음소리’ 를 낸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동리자와 만나고 다닌 것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 한 행동이겠군.
- ② 북곽 선생이 호랑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앞으로 기어나와 세 번 절한 후 무릎을 꿇고’ 말을 시작한 것은 예의를 최대한 갖춤으로써 호랑이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의도였

겠군.

③ 북곽 선생이 호랑이의 말을 듣고 난 후 ‘옆드린 채 머뭇거리다가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 린 것은 자신이 호랑이의 말을 따르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음을 드러내려는 것이겠군.

④ 북곽 선생이 호랑이에게 답할 때, ‘비록 악인이라도 목욕재계하면 상제를 섬길 수 있다.’ 라는 말을 인용한 것은 자신이 악인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고치겠다고 다짐하여 목숨을 구하려는 의도였겠군.

⑤ 북곽 선생이 농부에게 답할 때, ‘비록 하늘이 높다고 하나 ~ 감히 어그러지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말을 인용한 것은 들판에 혼자 옆드려 있던 자신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며 보이기 위한 것이겠군.

2.

<보기>는 호랑이의 꾸밈음을 정리한 것이다. 다음 중 호랑이의 발화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인간들은 ‘형구’ 를 공급하기에 바쁘지만, 호랑이에게는 형구가 없다.
- 인간들은 ‘국열’ 같은 퇴폐스럽고 어지러운 것을 즐기지만, 호랑이는 그렇지 않다.
- 인간들은 ‘노루나 사슴’ 을 잡아먹는 호랑이를 미워하지 않지만, ‘말이나 소’ 를 잡아먹는 호랑이는 미워한다.
- 인간들은 ‘별과 개미’ 의 집을 범하고 ‘메뚜기와 누에’ 의 살림을 빼앗고 흠쳐 가지만, 호랑이는 제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지 않는다.
- 인간들은 ‘무당이나 의원의 간교함’ 에 쉽게 빠지지만 호랑이는 ‘천명’ 을 알고 거기에 순종한다.

① 형벌에 사용되는 도구인 ‘형구’ 를 활용하여, 무서운 형벌이 있어도 악한 짓거리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범죄를 일삼는 인간의 실태를 비판하고 있다.

② 누룩으로 빚은 술인 ‘국열’ 을 예로 들어, 퇴폐스럽고 어지러운 일에 쉽게 빠져들어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③ ‘노루나 사슴’ 을 잡아먹을 때와 ‘말이나 소’ 를 잡아먹을 때에 인간이 드러내는 태도를 대비하여, 은혜가 있는 동물들을 함부로 저버리는 인간의 배은망덕함을 비판하고 있다.

④ 하늘과 땅이 낳아 기르는 만물로 ‘별과 개미’, ‘메뚜기와 누에’ 등을 제시하며, 남이 가진 것을 함부로 빼앗으며 도적질을 일삼는 인간의 탐욕을 드러내고 있다.

⑤ 세속적 욕망만을 추구하다가 ‘무당이나 의원의 간교함’ 에 속아 넘어가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천명’ 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인간의 자만심을 드러내고 있다.

3.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덧과 함정’, ‘그물’ 등은 짐승과 물고기를 잡기 위해 만든 도구로, 작가는 그러한 도구를 만든 인간의 욕망이 천하에 큰 화를 끼쳤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의 ‘바늘’, ‘창’, ‘도끼’, ‘작은 칼’, ‘포’ 등은 생명에 직접 위해를 끼치는 도구로, 작가는 이익을 위해 광포한 도구를 만들어 내는 인간의 잔학함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에서 ‘창’, ‘칼’, ‘검’, ‘극’, ‘화살’, ‘활시위’, ‘이 병기’는 모두 전쟁에 동원되는 무기로, 작가는 ‘이 병기’가 이용되면 전쟁의 참혹함이 더욱 심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④ ㉠은 ‘그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은 ‘창’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작가는 어질지 못한 인간들의 행동이 확장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은 ‘창’, ‘칼’, ‘검’, ‘극’, ‘화살’, ‘활시위’에 빗대어 ‘이 병기’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이 병기’가 ㉠이나 ㉡에서 언급한 도구들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가 호랑이를 대인이나 제왕보다 높은 존재로 추켜올려 그 권세를 드러내고 있다면, [B]는 호랑이를 두려워하며 피하는 짐승들을 나열하여 호랑이의 포악한 성질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가 호랑이를 신룡과 비슷한 수준의 존재로 추켜올려 호랑이의 신이한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면, [B]는 호랑이의 외양이나 행동을 통해 호랑이의 문무(文武)와 성품을 강조하고 있다.
- ③ [A]가 호랑이의 존귀함과 인간의 미천함을 대비하여 호랑이가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면, [B]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들이 호랑이보다 하찮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 ④ [A]가 변화, 걸음걸이, 효성, 위세 등을 기준으로 호랑이가 인간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B]는 슬기로우며, 문무, 인자함 등을 기준으로 호랑이가 인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⑤ [A]가 호랑이가 궁벽한 땅의 천한 신민임을 드러내면서 호랑이의 겸손한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면, [B]는 호랑이가 자신의 문양과 발톱, 이빨을 자랑하는 모습을 통해 호랑이의 거만한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가) 여수*에 잠겼을 때, 나에게서는 조그만 희망도 숨어버린다.

㉠요령*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어!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섰다.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 꿈
처럼

누덕누덕이 기워진 때 묻은 추억,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시정배와 같이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
다.

괴로운 행려 속 외로이 쉬일 때이면
㉢달팽이 깍질 틈에서 문밖을 내다보는 알미운 노스타르자
너무나, 너무나, 빼 없는 마음으로
오—너는 무슨 두 뿔따구를 휘저어보는 것이냐!
- 오장환, 「여수」

*여수: 객지에서 느끼는 쓸쓸함이나 시름.
*요령: 돛쇠로 만든 종 모양의 큰 방울.
*노스타르자: 노스텔지어.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지난 시절
에 대한 그리움.

(나)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 목에 걸렸던 ㉣방울을 / 하나 샀다.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 질 녘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삼륜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자 바닥에 따가운데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는
들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 들릴까 말까,
사립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 이수익, 「방울소리」

(다) 그것이 헛된 일임을 안다.
그러나 동경과 기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무너져
버린 뒤에도 그리움은 슬픈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나는 새해가 올 때마다 기도드린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게 해 달라고……. 어떤 엄청난 일, 무시무시하도록 나를 압도
시키는 일, 매혹하는 일, 한마디로 ‘기적’ 이 일어날 것을 나
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모험 끝에는 허망이, 여
행 끝에는 피곤만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잘 안다.

그리움과 먼 곳으로 훌훌 떠나 버리고 싶은 갈망, 바하만의
시구(詩句)처럼 ‘식탁을 털고 나부끼는 머리를 하고’ 아무 곳
으로나 떠나고 싶은 것이다. 먼 곳에서의 그리움(Fernweh)! 모르
는 얼굴과 마음과 언어 사이에서 혼자이고 싶은 마음! 텅 빈

위와 향수를 안고 돌로 포장된 음습한 길을 거닐고 싶은 욕망.
아무튼 낯익은 곳이 아닌 다른 곳, 모르는 곳에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나에게서 있다.

㉥포장마차를 타고 일생을 전전하고 사는 집시의 생활이 나
에게는 가끔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노래와 모닥불가의 춤
과 사랑과 점치는 일로 보내는 짧은 생활, 짧은 생. 내 혈관 속
에서는 어쩌면 집시의 피가 한 방울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혼자 공상해 보고 웃기도 한다.

내 영혼에 언제나 고여 있는 이 그리움의 샘을 올해는 몇 개
월 아니 몇 주일 동안만이라도 채우고 싶다. 너무나 막연한 설
계, 아니 오히려 ‘반설계(反設計)’ 라는 편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모든 플랜은 그것이 미래의 불확실한 신비에 속해 있
을 때에만 찬란한 것이 아닐까? 이루어짐 같은 게 무슨 상관있
으리요? 동경의 지속 속에서 나는 ㉦내 생명의 연소를 보고 그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만으로 메워진 삶을 내년에도 설계하려는
것이다.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특권이야말로 언제나 새해가 우리
에게 주는 유일의 선물이 아닌가 나는 생각해 본다.
- 전해린, 「먼 곳에서의 그리움」

5. 25001-030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동일한 시어나 시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
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직유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가 처
한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가)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는 대조의 방식을 사용
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는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나)는 시간의 변화를 중심
으로 화자의 정서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⑤ (가)는 상황의 가정을 통해서, (나)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
억을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6.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화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상이다.
- ② ㉠와 ㉡는 모두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함축하여 드러내는
사물이다.
- ③ ㉠는 화자의 처세를 상징하는 소재이고, ㉡는 화자의 지향을
상징하는 사물이다.
- ④ ㉠는 화자가 정서적으로 애착을 보이는 사물이고, ㉡는 화자
가 거부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⑤ ㉠는 화자의 정서적 불안정을 형상화한 사물이고, ㉡는 화자
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7.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편적인 사고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② 글쓴이가 과거에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구체적인 경험보다는 공상과 사유의 방식으로 글쓴이가 바라는 바를 표현하고 있다.
- ④ 타인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 ⑤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일화들을 열거하여 독자들이 삶에서 경계해야 할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의 고된 처지를 장돌뱅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② ㉡: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사물의 형상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④ ㉣: 글쓴이의 현재와 다른 삶의 형태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열정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9.

여수와 향수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수는 화자를 좌절하게 하는 정서이고, 향수는 글쓴이가 느끼기를 기대하는 정서이다.
- ② 여수는 화자의 상상을 통해 얻은 정서이고, 향수는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은 정서이다.
- ③ 여수는 화자의 부끄러움을 환기하는 정서이고, 향수는 글쓴이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정서이다.
- ④ 여수는 화자가 누군가를 떠올리며 얻는 정서이고, 향수는 글쓴이가 누군가를 외면하며 얻는 정서이다.
- ⑤ 여수는 화자의 심리적 이완을 초래하는 정서이고, 향수는 글쓴이의 심리적 긴장감을 초래하는 정서이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인간은 현실에 발붙이고 있지만 항상 자신이 있지 않은 다른 시·공간에 대한 선망과 그리움을 품고 있다. 그것은 자신이 발붙이고 있는 현실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현실에 대한 인간의 인식 자체가 왜곡된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인간이 선망하고 그리워하는 시·공간은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시·공간일 수도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미래의 시·공간일 수도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망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실현에 대한 기대 때문만은 아니다.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지라도 꿈꾸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가)~(다)는 화자 또는 글쓴이가 발붙이고 있는 현실과는 다른 시·공간에 대한 선망과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 ① (가)의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은 화자를 ‘추억이 무성한 숲속’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화자는 자신이 살아온 현실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나)의 ‘소를 몰고 여름 해 질 녘 하산하던 / 그날의 소년’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화자의 그리움이 과거에 경험했던 시·공간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다)의 ‘모르는 얼굴과 마음과 언어 사이에서 혼자이고 싶은 마음’은 글쓴이가 경험하지 못한 대상과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동경과 기대가 낮선 것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가)의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와 (나)의 ‘삼륜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 저자바닥에 따가운데’와 같은 인식은 각각 현실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화자가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 들릴까 말까’와 (다)의 ‘모든 플랜은 그것이 미래의 불확실한 신비에 속해 있을 때에만 찬란한 것이 아닐까?’에서 자신이 바라는 바의 실현에 대해 의문형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글쓴이가 각각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그야 얼마를 쓰셨든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하자 유구무언(在下者有口無言)*’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나?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

아까부터 상훈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던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게진다.

부친의 소실 수원집과 경애 모녀와는 공교히도 한 고향이다. 처음에는 감쪽같이 속여 왔으나 수원집만은 연줄 연줄이 닿아서 경애 모녀의 코빼기도 못 보았건마는 소문을 뻔히 알고 따라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집안에서 다 알게 되었던 것이다. 덕기 자신부터 수원집의 입에서 대강 들어 안 것이다. 그러나 내외가 몇 번 충돌한 외에는 노영감님도 이때껏 눈감아 버린 것이요, 경애가 들어 있는 북미창정 그 집에 대하여도 부친이 체근한 일은 없는 것이라서 지금 조인광좌(稠人廣座)* 중에서 아들에게 대하여 학교에 돈 쓰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유인하였다는 말을 터놓고 하는 것을 들으니 아무리 부친이 화끈한 말이라 하여도 듣기에 괴란쩍고 부자간이라도 너무 야속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어쨌든 세상에 좀 할 일이 많습니까. 교육 사업, 도서관 사업, 그 외 지금 조선어 자전 편찬하는 데…….”

상훈이는 조심도 하려니와 기를 녹이어서 차근차근히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할 말을 다 하겠다는 듯이 말을 이어 나가려니까 또 벼락이 내린다.

“듣기 싫다! 누가 네게 그 따위 설교를 듣자던? 어서 가거라.”

“하여간에 말씀입니다. 지난 일은 어쨌든 지금 이 판에 별안간 치산*이란 당한 일입니까. 치산만 한대도 모르겠습니까마는 서원을 짓고 유생들을 몰아다 놓으시렵니까?…… 돈도 돈 이거니와 지금 시대에 당한 일입니까?”

상훈이는 아까보다 좀 어기를 높여서 반대를 하였다.

“잔소리 마라! 그놈 나가라니까 점점 더하고 쏘고나. 내가 무얼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내가 죽으면 동전 한 닢이라도 너를 남겨 줄 줄 아니! 너는 이후로는 아무리 굶어 죽는다 하여도 한 푼 없다. 너는 없는 셈만 칠 것이니까…… 너희들도 다 들어 두어라.”

하고 좌중을 둘러다 보며 말을 잇는다.

“내 재산이라야 얼마 있는 게 아니다마는 반은 덕기에게 물려줄 것이요, 그 나머지는 내가 쓰고 싶은 데 쓰다 남으면 공평히 나누어 주고 갈 테다. 공증인을 세우든 변호사를 불러 대든 하여 뒤를 깡그러뜨려 놓을 것이니까 너는 인제는 남된 셈만 쳐라. 내가 죽으면 내가 머리를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

영감은 사실 땅문서도 차츰차츰 덕기의 명의로 바꾸어 놓아가는 판이요 반은 자기가 쓰다가 남겨서 수원집과 막내딸의 명의로 물려줄 생각이다. 만일에 십오 년 더 사는 동안에 아들 하나를 더 본다면 물론 그 아들을 위하여 반은 물려줄 요량도 하

고 있는 터이다.

㉡이때까지 술이 취하면 주정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기도 많이 하였지만 오늘은 친기*라 하여 술 한 잔 안 자신 이영감이 맑은 정신으로 여러 젊은 애들 앞에서 떠들어 놓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야 이 방중은 고사하고 이 집안 속에서 자기편을 들어 줄 사람이라고는 하나 없고나 하는 생각을 하니 상훈이는 새삼스러이 고독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야속하였다.

“애비 애미도 모르고 계집자식도 모르는 너 같은 놈은 고생을 좀 해 봐야 한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없어 보아라. 돌아다보기커녕 고려장이라도 족히 지낼 놈이 아니냐. 어서 나가거라. 이 자식, 조상을 꾸어 왔다는 자식은 조가가 아니다.”

하고 노인은 별안간 벌떡 일어나서 아들을 때밀어 내쫓으려는 듯이 덤벼든다.

(중략)

‘그날 취중에 아내에게 경애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였던가? 그래서 아내가 어머니에게 말씀하고 또 말이 아버지께로 들어가고 만 것인가?’ 덕기는 이렇게 생각하여 보았다.

㉢사실 그 추측이 옳았다.

모친은 가뜩이나 한 판에 며느리에게 ‘어제 애아범이 흥경 애인가를 일본 술집에서 만났대요.’ 하는 소리를 들을 제 한동안 잊었던 일이 다시 머리를 쥐어뜯었고 영감이 그저 끼고돌면서 밑천을 대어 주어서 그런 하이칼라 술집까지 경영시키는 것이라고만 믿어 버렸다.

모친은 아들을 보고 너까지 그년과 한판이 되어서 술을 얻어 먹으러 다니느냐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싶었으나 그동안 큰집에서는 이런 말을 꺼낼 틈이 없었고 아까 안방에서는 수원집 놀래*를 하기에 깜빡 잊어버렸던 것이다.

㉣하여간에 영감이 어젯밤에 모처럼 안방에 들어와서 왜 수원집과 싸우고 다니느냐고 야단을 칠 때 마누라의 입에서 흥경애 놀래가 나오고 말았다.

마누라의 말은 네 살이나 다섯 살 먹은 자식까지 달렸는데 좀처럼 헤어질 리가 있겠느냐고 상성*이요, 영감의 말은 헤어지든 말든 아랑곳이 무어냐? 지금이라도 이혼해 달라면 이혼해 주마고 맞장구를 친 것이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까마는 저대루 내버려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덕기는 말을 꺼내기가 거북한 것을 억지로 부리를 뚫다.

“내버려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니? 내 처지도 내 처지요, 제가 발광을 하고 떨어져 나간 것을…….”

“말눈치가 그렇지 않은가 보던데요?…… 어쨌든 아버지 체면만 생각하시고 거기 달린 두 사람 세 사람을 희생해 버리시고 마는 것은 아무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도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덕기는 당돌히 하고 싶은 말을 꺼냈다.

“네가 참견할 것 아니야!”

하고 부친은 소리를 친다.

“제가 참견할 것도 아닙니다마는 처음이고 나중이고 모두 아버지 책임이 아닙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들은 대드는 수작이다.

“책임이 내가 무슨 책임이란 말이나? 어쨌든 내가 쥐뿔 나게 나설 일이 아니야!”

부친은 또 불쾌히 편잔을 주었다. 학교 이야기를 할 때까지는 덕기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잘 어루만져 주어야 하겠다는 생

각을 하였으나 지금은 그것도 잊어버리고 전대로의 까닭 모를 못마땅한 생각이 머리를 든 것이다.

“어쨌든 저편에서 일을 버르집어 낸 것도 아닐 것이요, 저편에서 물러선 것은 아니겠지요. 세상에서 떠드는 것이 무서우시니까…….”

“잔소리 마라! 어린 게 무얼 안다고 주책없이 할 소리 못 할 소리 기탄없이…….”

부친은 듣기도 싫지만 아비 된 성품을 세우려는 것이다.

덕기는 잠자코 앉았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말이 난 김이니 하고 싶던 말은 다 하고야 말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어쨌든 그 애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애까지야 무슨 죄로 희생이 됩니까? ㉠제가 감히 아버지의 잘잘못을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마는 뒷갈망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무슨 뒷갈망을 하라는 말이냐?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하고 부친은 소리를 한층 더 버럭 지른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그제 저녁에 가 보고 왔습니다만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할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책임을 모피하시려고— 허물을 저편에 들썩우고 발을 빼시려고 그렇게 모함을 잡으신 것은 설마 아니시겠지요?”

덕기는 상성이 났다.

“무어 어째? 그제 자식으로서 아비에게 하는 말버릇이냐?”

하고 부친은 화를 참느라고 소리를 낮추어서,

“어서 가거라! 어서 가!”

하고 들것질을 한다.

- 염상섭, 「삼대」

*재하자 유구무언: 아랫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도 못 하고 지냄을 이르는 말.

*조인광좌: 여러 사람이 뻐뻐하게 많이 모인 자리.

*치산: 산소를 매만져서 다듬음.

*친기: 부모님의 제사.

*놀래: ‘논래’의 옛 표현. ‘논의’, ‘논란’의 뜻으로 사용함.

*상성: 몹시 보챌.

11. 25001-030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여러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현재 이야기 속에 과거 이야기를 삽입하여 갈등의 근원적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③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그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특정 공간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여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교차로 제시하여 갈등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덕기의 모친은 경애를 만난 덕기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 ② 덕기는 경애 모녀의 소식을 수원집을 통해 알게 되었다.
- ③ 상훈은 아내에게 경애와 당장 헤어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 ④ 덕기는 부친이 경애와 헤어지기 위해 그녀를 모함한다고 여겼다.
- ⑤ 상훈의 부친은 여력이 된다면 자식을 낳아 그에게도 유산을 줄 생각이 있었다.

1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훈이 부친에게 격식을 갖추어 말했지만, 부친의 행위에 불만을 지녔다.
- ② ㉡: 상훈은 그동안 유산 상속에 관해 부친이 한 말이 진실임을 깨닫게 되었다.
- ③ ㉢: 덕기는 자신과 경애와의 만남을 아내가 알게 된 게 부친 때문임을 확인했다.
- ④ ㉣: 모친은 자신을 꾸짖는 남편의 말에 자극받아 경애 이야기로 남편을 몰아세웠다.
- ⑤ ㉤: 덕기는 부친이 직접 나서서 경애와 그녀의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한 집안의 삼대(三代) 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통해 여러 가치관이 충돌되던 상황을 그리고 있다. 덕기의 조부 조 의관은 가문과 제사를 중시하는 고루한 봉건 의식의 소유자로 재산의 축적에만 온 관심을 쏟는 지독한 현실주의자이다. 덕기의 부친 조상훈은 전통적 가치보다 신문물 수용에 적극적인 근대적 가치의 소유자로, 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표명하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중적 인물이다. 덕기는 조부나 부친과는 달리 특정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따르려 하지 않고 여러 가치관에 대해 중립을 지키려는 중도적 인물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며 가문을 지켜야 하는 책무로 갈등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세 인물이 겪는 갈등은 재산 상속,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실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①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 라는 노친의 말은, 상훈의 이중적 면모를 폭로함으로써 그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② ‘치산만 한대도 모르겠습니까’ 라는 상훈의 말은,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고루한 봉건 의식을 지닌 노친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③ ‘너는 인제는 남 된 셈만 쳐라. 내가 죽으면 네가 머리를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 라는 노친의 말은, 전통적 가치를 무시하는 상훈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④ ‘아무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도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덕기의 말은,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무책임하게 이를 회피하려고만 하는 부친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⑤ ‘잔소리 마라! 어린 게 무얼 안다고 주책없이 할 소리 못 할 소리 기탄없이…….’ 라는 상훈의 말은, 덕기가 가문에 대한 책무 때문에 여러 가치관에 대해 중립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반감을 나타낸 것이로군.

(가) ㉠ 내 이미 백구 잊고 백구도 나를 잊네
 둘이 서로 잊었으니 누군지 모르리라
 언제나 해옹을 만나 이 둘을 가려낼꼬 <제1수>

㉡ 붉은 잎 산에 가득 빈 강에 쓸쓸할 때
 가랑비 낚시터에 낚싯대 제 맛이랴
 세상에 득 찾는 무리 어찌 알기 바라리 <제2수>

내 귀가 시끄러움 네 바가지 버리려문*
 네 귀를 씻은 샘에 내 소는 못 먹이리
 공명(功名)은 해진 신이니 벗어나서 즐겨 보세 <제3수>

옥계산 흐르는 물 못 이뤄 달 가두고
 맑으면 갓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네
 어떠한 세상 사람도 청탁(淸濁)을 모르래라 <제4수>
 - 이별, 「장육당육가」

*내 귀가 ~ 버리려문: 허유와 소부의 일화와 관련됨. 허유는 요임금이 천하를 주겠다고 하자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며 강물에 귀를 씻었고, 소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귀 씻은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다고 하였음. 화자는 공명에 대한 제안을 받은 귀와 그 귀를 씻을 물을 담은 바가지를 언급함.

(나) 청계상 반구정(伴鷗亭)에 극목소쇄* 풍경일다
 무심한 백구들은 자거자래* 무삼 일고
 백구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모를쏘냐 <제1수>

백로주 돌아들어 반구정을 돌아가니
 ㉢ 장연은 일공한데* 호월(皓月)*은 천리로다
 아이야 풍광이 이러하니 아니 놀고 어찌하리 <제2수>

연하*로 집을 삼고 구로(鷗鷺)*로 벗을 삼아
 ㉣ 팔 베고 물 마시고 반구정에 누웠으니
 세상의 부귀공명은 현 신인가 하노라 <제6수>

맑으나 맑은 창랑파(滄浪波)에 태을 연엽* 띄웠는데
 탁영가* 한 곡조에 잠든 날 깨우거든
 유자(孺子)야 청탁자취*를 나는 몰라 하노라 <제7수>

㉤ 청산은 만고청(萬古靑)이요 유수는 주야류(晝夜流)라
 산청청 수류류 그지도 없을시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산수같이 하오리라 <제11수>
 - 신지, 「영언십이장」

*극목소쇄: 시선이 미치는 곳까지의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경치.
 *자거자래: 제멋대로 왔다가 제멋대로 감.
 *장연은 일공한데: 길게 드리운 저녁연기는 텅 빈 것 같은데.
 *호월: 밝은 달.
 *연하: 안개와 노을.
 *구로: 갈매기와 백로.
 *태을 연엽: 신선이 타는 배.
 *탁영가: 갓끈을 씻으며 부르는 노래.
 *청탁자취: 깨끗하고 더러움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

15. 25001-031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해옹’에 대해 화자는 각각 구별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분간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긴다.
- ② (나)의 ‘연하’에 대해 화자는 자신과 대상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한다.
- ③ (가)의 ‘네 귀를 씻은 샘’은 (나)의 ‘탁영가’와 달리 화자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된다.
- ④ (가)의 ‘옥계산’과 (나)의 ‘반구정’은 모두 화자가 가고자 하는 공간이다.
- ⑤ (가)의 ‘백구’와 (나)의 ‘백구’는 모두 화자의 좌절감을 환기하는 대상이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동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며 자연 속에서의 한적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공간의 특징을 묘사하여 공간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여 전원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물의 영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와 (나)에는 모두 ‘창랑의 물이 맑거든 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내 발을 씻으리라’라는 굴원의 「어부사」의 시구가 활용되어 있다. 이는 세상이 맑으면 맑게 살고, 세상이 흐리면 흐리게 살라는 뜻으로, 두 작품은 모두 굴원의 시구를 활용하여 처사로서 살아가는 작가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에 두 작품은 속세와 대비되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나 전원생활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작가가 은거하게 된 상황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삶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의 작가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어쩔 수 없이 은거하게 된 인물로, 작품에는 세속적 가치에 대한 초연함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 (나)가 창작된 시기는 향촌 사족이 정치에 나아가기 어려웠던 시기로, 작가는 현실에 대한 미련을 표출하기보다 향촌에서 처사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스스로를 수양함으로써 깨끗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향을 드러낸다.

- ① (가)의 ‘세상에 득 찾는 무리 어찌 알기 바라리’를 통해 자신이 속세의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나)의 ‘우리도 그치지 말아 산수같이 하오리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갈고닦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군.

③ (가)의 ‘공명은 해진 신’ 과, (나)의 ‘세상의 부귀공명은 현 신’ 을 통해 모두 작가가 속세의 가치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④ (가)의 ‘가랑비 낚시터에 낚싯대 제 맞이라’ 와, (나)의 ‘풍광이 이러하니 아니 놀고 어찌하리’ 를 통해 모두 은거하는 삶 속에서 즐기는 흥취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군.

⑤ (가)의 ‘어떠한 세상 사람도 청탁을 모르래라’ 를 통해 속세에 있으면서 바르게 처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나)의 ‘청탁자취를 나는 몰라 하노라’ 를 통해 속세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군.

수특 끝이노. 하 힘들어